

밥 한끼 먹으러 학교 오라고…

광주 초등 '방학 급식' 신청학교 없어…졸속 추진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여름방학 초등학교 유상급식이 무산됐다.

급식비가 3700원으로 현재 중·고생급식비보다 비싼데도 방학 중에도 출근해야 하는 조리사, 조리원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일선 학교들이 사업 참여를 끝인 탓이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방학 중에 학교급식(점심)을 하도록 초등학교에 관련지침을 내려 보냈다. '무상'이 아닌 '유상'인 만큼 희망자 신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시 교육청이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146곳 가운데 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도 적지 않는 논란이 일었다. 우선 점심 해결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 결손가정,

조손가정 자녀 등이 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급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만2000여명에 이르는 이들 학생은 일선 구청에서 쿠푼으로 점심값을 지급받아 시중 음식점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자체와 협의가 안 돼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또 점심을 먹기 위해 등교한 학생에게 제공할 만한 프로그램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점심 한끼 먹으려 교사도 출근하지 않는 학교까지 가야 하느냐'는 주장과 '자녀 점심 걱정을 해결해 좋다'는 등 찬반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100명 기준으로 한계에 3700원으로 예상된 비싼 가격을 비롯해 출근해야 하는 조리사, 조리원의 반발과 혼란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결식아동을 급식 대상에 넣기 위해 지난달 5개

구청 지원비를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무산됐다"며 "일선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행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연예기자 penfoot@kwangju.co.kr

가보고 싶은 해수욕장 클릭하세요

교통·숙박·명소 등 소개 정보 사이트 개설

국토해양부는 피서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수욕장 종합안내 사이트 (<http://KorBeach.go.kr>)'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해수욕장 333곳의 위치, 특성, 관련 행사, 교통편, 숙박,

음식, 관광명소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레저, 휴양, 경관 등 주제별로 이용자들이 추천한 해수욕장도 검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사이트가 피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해수욕장의 4계절 이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예뉴스



10일 한국기원 광주지부에서 열린 '제20회 광일배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참가자들이 대국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품수수' 초등 교장 결국 해임

광주시교육청, 교과부 정직 3개월 징계 반발 재심 요구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광주 남구 모초교 A교장에 대해 이보다 무거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교장은 방과 후 강사 등 4명으로부터 200여만원을, 교사 등 4여명으로부터 떡값 명복으로 440여만원을 받았다가 시 교육청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 교육청 징계위는 지난 5월23일

A교장이 교육에 헌신하고 퇴임을 3개월 앞둔 점을 고려해 정직을 외쳤다. 그러나 장희국 시교육감은 전교조 등이 반발하자 교과부에 과면 등 재심을 요구했었다.

피고 격인 징계 대상자가 양정이 너무 지나치다며 교과부에 소청심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허락하지만, 겸사 격인 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연예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양 포스코팀 단체전 우승

광일배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개인전 김광식씨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교장은 방과 후 강사 등 4명으로부터 200여만원을, 교사 등 4여명으로부터 떡값 명복으로 440여만원을 받았다가 시 교육청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 교육청 징계위는 지난 5월23일

A교장이 교육에 헌신하고 퇴임을 3개월 앞둔 점을 고려해 정직을 외쳤다. 그러나 장희국 시교육감은 전교조 등이 반발하자 교과부에 과면 등 재심을 요구했었다.

피고 격인 징계 대상자가 양정이 너무 지나치다며 교과부에 소청심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허락하지만, 겸사 격인 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포스코는 최영호(56·정장효(47)씨가 4전 전승, 이도연(28)씨가 3승

을 거두는 등 12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제18회 1위, 17회 3위를 차지하는 등 광일배에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난 2009년 제18회 대회에서 포스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송립은

김광식·이창준·김관천씨가 11승을 거두며 ㈔송립(10승)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전남교사회(김영수·조시균·박윤섭)는 8승으로 한국전력, 대한주택관

리시협회와 동률을 이뤘지만 승점에 서 앞서 3위에 올랐다.

개인전에서는 ㈔송립 김광식씨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영배씨를 197수 끝에 불계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 공동 3위에는 최영호·정장효(이상 포스코)씨가 올랐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광주시청, 광주교도소, KT 등 16개팀 48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심사위원장은 맡은 오규철 지부장

은 "이번 대회는 경기마다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명승부가 연출됐다"며

"인터넷, TV 등 바둑이 대중화되면서 선수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됐다"

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물 05시 26분 해진 19시 49분

달밤 16시 07분 달점 01시 24분

우산 챙기세요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다.

광주	흐리고가끔비	23/29°C
목포	오후에가끔비	23/27°C
여수	흐림	23/27°C
나주	흐리고가끔비	23/30°C
완도	흐림	22/29°C
구례	오후에가끔비	23/30°C
강진	흐림	23/29°C
해남	오후에가끔비	23/30°C
장흥	오후에가끔비	23/30°C
순천	오후에가끔비	23/28°C
영광	오후에가끔비	23/28°C
진도	흐림	23/29°C
전주	흐리고가끔비	23/29°C
군산	흐리고가끔비	22/27°C
남원	흐리고가끔비	22/29°C
흑산도	흐리고가끔비	20/25°C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낮	0.5~1.0m	0~10
낮씨	0.5~1.5m	10:09 03:48

낮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반다	남동~남	0.5~1.0m	10:09 03:48
남해 서부	일반다	남동~남	0.5~1.5m	23:25 15:52
남해 원	일반다	동~남동	0.5~1.0m	05:16 11:27

◇주간날씨

날짜	날씨	최저/최고	날짜	날씨	최저/최고	날짜	날씨	최저/최고
12(화)	구름	23/30	13(수)	구름	22/29	14(목)	구름	23/29
15(금)	구름	22/30	16(토)	구름	22/30	17(일)	구름	22/30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운전면허증 간신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경찰서도 국제면허 발급

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경신 시간 경과에 따라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2만원, 1년 이후 1개월 경과 간신을 하지 않고 베티다가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

관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경찰서로 확대돼 이를 통해 경찰서로 경찰서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 관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경찰서로 확대돼 이를 통해 경찰서로 경찰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성을 갖는 곳이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국 약 250개 경찰서로 확대·변경된다.

/연예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국제보청기]

총 5가지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 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비새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밀라·공장의 회소식 국내최초 특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단단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